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5월-A호)



CST 국제협력처 근황_이경식 부총장(국제협력)



(사진: 이경식 부총장)

2024년 3월 국제협력처 부총장으로 부임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일년을 돌아보며 제가 맡은 직책에 대한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5-6일 LA 지역의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CST의 첫 공개강좌가 열렸습니다. CST와 한인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한인 대상 이러한 공개강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개강좌에 강남순 교수가 강연하였으며 120여 명의 평신도와 목회자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8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연회 및 몇 분의 재정적 후원, 그리고 크리스천위클리 후원회 없이는 치를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공개강좌를 연중행사로 주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진: 4월 5일 강남순 교수 강연 모습)

Joyce Yeum님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강의를 통해 많은 챌린지를 받았고, 특히 예수와 나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너무 표면적으로만 또는 형이상학적으로만 존재하던 예수의 상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위의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편협한 생각을 했었다는 성찰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확고해졌습니다. 여러모로 제 신앙을 위해 도움이 되었고 흥미진진한 강의였습니다.

목회자 대상 공개강좌에는 4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미 전국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회장인 이창민 목사는 (LA연합감리교회 3월 27일 주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이창민 목사)

LA 주변에 유명한 강좌가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상적 강의이고, 그나마 교회에서 열리더라도 간증이나 찬양 집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CST에서 저명한 신학자인 강남순 교수를 초청해서 한국어로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한인들이 많이 있는 LA 인근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마련한 특별행사입니다. ... 신학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지만, 그 학문을 하는 현장은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인 신학 강좌를 통해 평신도가 사역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하고, 신학적 사고를 통해 삶 속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법을 터득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사역센터

올해 열린 공개강좌를 계기로 CST가 한인교회를 도와 지적 및 영적 자원이 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몇 목사님의 조언과 협조 아래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중에 이 Center를 CST와의 협력체 센터로 설립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미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 (이창민, 존칭 생략), 부이사장 (이영성), 총무 (이상영), 서기 (전재홍), 이사 (안정섭, 김남중), 사무총장 (이경식).

이 한인사역센터를 통해 CST와 한인 교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신앙이 중심과 균형이 잘 잡힌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금 활동

국제협력처 부총장으로 제가 맡은 주요 책임 중 하나는 모금 활동입니다. 최근 타주에 사는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 본인이 살고 계신 콘도를 학교에 기부하여 한인 학생을 위한 영구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CST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이분의 삶의 여정에 대해 듣는 중, 제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점점 더 소멸해 가는 기부 문화 속에서,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당신의 전 재산을 신학교를 위해 기부하기로 하셨을까? 아직도 우리 사회를 위하여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믿고, 신학교를 위하여 물질로 돕고, 신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한 이 분은 제가 담당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도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믿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ST를 포함하여 많은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모금된 금액은 \$529,683이며 약정된 금액을 합하면 \$1,212,733입니다. CST에서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면 아직도 미비합니다만, 저도 학교도 기대하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기부하시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곽주환 목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사 선출, 신학과 목회의 길, 세계를 향한 섬김으로 꽃피우다



(사진: 곽주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베다니교회 곽주환 담임목사가 그의 모교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사회(Board of Trustees) 위원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한 목회자의 오랜 헌신과 사역이 세계 신학과 목회 교육의 현장으로 확장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곽 목사는 1986년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 학사를 마친 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1990)와 목회학 박사(D.Min., 1994)를 취득했다. 그의 목회학 박사 논문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 웨슬리와 바르트를 중심으로”는 성령론과 설교학을 실천적으로 접목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2000년부터 베다니교회를 담임목사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사랑과 회복의 목회를 실천해 왔다. 다수의 저술과 번역으로 설교학과 실천신학의 대중화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 선출은 곽 목사가 정의, 연민, 소속감이라는 클레어몬트의 핵심 가치를 삶으로 구현해 온 인물임을 학교가 다시 확인한 결과다. 그는 한국 동문회 회장을 6년간 역임하며 동문들과 모교 사이의 신뢰를 공고히 했고,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장, 선교사 교육원 원장 등으로도 활약 중이다. 이경식 부총장은 곽 목사를 “깊은 영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이사회 참여가 학교의 글로벌 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신학과 목회가 맞닿는 경계에서 길어올린 곽주환 목사의 오랜 목회 여정의 열매가, 클레어몬트를 통해 세계를 향한 섬김의 길로 다시 열매 맺고 있다. 또한 그의 이사회 참여가 클레어몬트를 넘어 세계 신학과 목회 현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박사과정 학생 7명, 구술 시험 통과!

2025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7명의 한인 학생들이 2월과 3월 중, 구술 시험을 통과하며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각자의 연구 주제에서 혁신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는 5월 20일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문과 목회 여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김지훈 목사 구술시험 현장)

김지훈 목사(PhD)는 소송으로 인한 목회적 트라우마와 그 치료 방안을 탐구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을 사용해 자신의 목회 경험을 분석하며, 특히 ‘공적 수치심’이라는 목회적 트라우마의 특징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감정 표현을 통한 **편도체 안정화**가 인지행동치료(CBT)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시편의 치유적 가능성을 탐색했고, 트라우마를 겪은 목회자를 위한 **지지적 교회 환경, 안전한 감정 표현 공간, 상호 옹호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진: 한선종 목사 구술시험 현장)

한선종 목사(DMin)는 캄보디아 교회에서의 선교 이양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한 외국인 선교사의 인식 변화를 통해 **탈식민주의적 선교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을 탐구하고, 상호의존적 목회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와 자기 성찰적 접근**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방적 선교 모델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 선교**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진: 홍성찬 목사 구술시험 현장)

홍성찬 목사(DMin)는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구했다. **탈식민주의 실천신학과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 단절과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더 **환대적이고 포용적인 사역**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윤성은 목사 구술시험 현장)

윤성은 목사(DMin)는 한국 감리교회 부교역자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경험을 탐구했다. 연구에서는 **과도한 책임, 위계적 구조, 사회적 기대**가 심리적 고통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다. 윤 목사는 **탈식민주의 신학, 상호의존성,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부교역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교회의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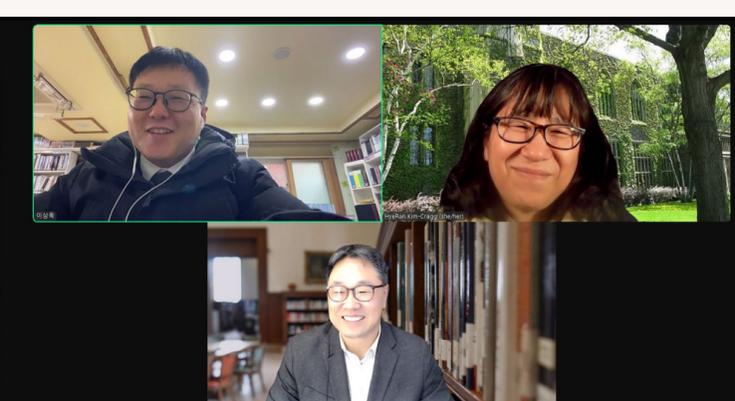
(사진: 오천수 목사 구술시험 현장)

오천수 목사(DMin)는 초고령 시대에 맞는 목회적 돌봄의 재구성을 연구하며, 노년 세대 성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상실, 세대 간 소통, 주변화, 영적 상속**의 네 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했다. 연구는 노년 성도를 **수동적 돌봄 대상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주체**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목회적 실천 모델을 통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남인보 목사 구술시험 현장)

남인보 목사(DMin)는 교회 공동체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과 분열을 분석하며, **배제, 주변화,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그는 장애인 교인들이 교회에서 겪는 **소외와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상호의존적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탐구했다.



(사진: 이상옥 목사 구술시험 현장)

이상옥 목사(DMin)는 청년들의 설교 경험을 **포스트콜로니얼 시각**과 **상호의존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는 설교 전, 중, 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설교자와 청중이 **교육자와 학습자로 분리되는 수동적 설교 경험**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호의존적 설교 모델**을 제시하며, 설교 후 작은 **그룹 토론**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기대와 은혜가 넘치는 설교 경험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연구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 동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와 실천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다.

L.A.연합감리교회 장학재단



(120주년 예배 후 - 2024년 3월 10일)

LA연합감리교회는 1999년에 기부 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은 2024년까지 총 144만 달러 규모의 장학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매년 이 기금의 이자는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2024년 현재, 약 280명의 학생에게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23명의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이들 중에는 재정이 어려운 목회자의 자녀, 북한 탈북자 자녀, 멕시코, 몽골,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의 선교지 학생들, 그리고 교회 소속 자녀들이 포함되었다. 최근 몇 년간 LA연합감리교회는 매년 1만 달러를 CST에 기부해 왔으며, 2024년까지 총 6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LA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자 CST 동문인 이창민 담임목사는 장학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한국과 CST에서 학습하는 동안 많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학생이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많은 기부자들의 관대함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A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교회로, 항상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 장학금 재단의 설립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많은 교인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보험금을 장학금 기금에 기부하도록 지정했다. 교회는 CST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본토의 한국 교회 공동체의 '장자 교회'로서 계속해서 미래의 교회 리더들을 양성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5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이경식 부총장
이현재 목사
문봉장학재단(김병학 회장)
월서연합감리교회
Mr. Kenneth Jo
Mr. Jong J. Lee
박정은 박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5일 기준): **\$394,658**

- KEF 잔액(1990.03. - 2025.5.):	\$2,391,654
- KLS 잔액(2018.10. - 2025.5.):	\$798,700
- General Fund (2024.03. - 2025.5.):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5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2,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미주 최초의 한인 교회인 LA연합감리교회는 1999년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2024년까지 총 144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약 280명의 학생에게 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기금 이자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돕고 있다. 최근 몇 년간 CST에도 매년 1만 달러씩, 총 6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담임목사이자 CST 동문인 이창민 목사는 “장학금은 기부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LA연합감리교회는 생명보험 기부 등을 통해 미래의 신학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CST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